

보도시점 : 2024. 3. 20.(수) 14:30 이후(3. 21.(목) 조간) / 배포 : 2024. 3. 20.(수)

국토부, 국민이 애용하는 교통서비스 산업계와 함께 시동 건다

- 20일 교통업계와 세 번째 국토교통 산업 릴레이 간담회
... 국민의 이동권 증진·서비스 이용 활성화를 위한 방안 모색

- 국토교통부(장관 박상우)는 국토교통 주요 정책에 대한 업계 공감대 형성 및 현장 소통을 위한 세 번째 국토교통 산업계 릴레이 간담회를 ‘버스·터미널, 택시·플랫폼 등 교통산업 부문’에서 개최한다.
- 교통 정책의 목표는 국민들이 자가용 없이도 출·퇴근, 통학 등 일상적 이동이 가능하도록 공공성 있는 이동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있다.
- 최근 수년간 대중교통 수요감소와 지역소멸, 인력수급 문제 등으로 교통산업의 여건 변화에 따라 정부-산업계 간 간담회를 개최하게 되었다.
- 교통업계 릴레이 간담회는 3월 20일(수) 오후 2시 30분 서울에서 열릴 예정이다. 버스·터미널, 택시·플랫폼 업계와 함께 국민의 이동권 증진과 대중교통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방안을 토론할 예정이다.

【 간담회 참여기관 】

- ▶ (정부·연구기관) 국토교통부, 한국교통연구원
- ▶ (버스) 버스연합회, 마을버스연합회, 전세버스연합회, 터미널협회, 특수여객연합회
- ▶ (택시) 법인택시연합회, 개인택시연합회
- ▶ (플랫폼) 카카오모빌리티, 우티, 티머니, VCNC, 파파모빌리티

- 먼저, 한국교통연구원에서 교통산업의 현황 진단과 전망을 발표하고, 국토교통부가 업계 부담 완화를 위해 계획 중인 오래된 규제완화, 인력난 해소 지원방안, 서비스 다양화 지원방안 등의 정책 추진방향을 논의한다.

- 아울러, 차고지 규제 완화, 거점 버스터미널 육성, 터미널 시설규제 완화, 공정한 택시 플랫폼 운영, 디지털 취약계층을 위한 택시 호출시스템 개선, 플랫폼운송업의 차령 규제 합리화 등 **교통업계가 건의한 정책과제들도 논의할 계획**이다.
- **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**은 “**대중교통 활성화**를 위해서는 퍼스트마일-간선대중교통-라스트마일로 이어지는 **여객수송체계**에서 핵심 교통수단인 **버스·택시의 역할이 중요하다**”면서,
 - “**정부와 교통업계가 자동차의 양 바퀴가 되어 대중교통 활성화 정책을 마련하고 시행할 필요가 있다**”고 강조할 계획이다.
 - 아울러, “**교통산업의 침체는 국민의 교통불편 뿐만 아니라, 자가용 이동 수요 증가에 따른 교통혼잡 등 막대한 사회적 비용을 초래할 수 있는 만큼, 정부는 전방위적 지원책을 펼쳐나갈 계획**”이라고 밝힐 예정이다.

담당 부서	종합교통정책관 교통서비스정책과	책임자	과 장	이주열 (044-201-2146)
		담당자	사무관	노지훈 (044-201-4756)
		담당자	사무관	서윤원 (044-201-3813)
		담당자	사무관	정일웅 (044-201-3832)



더 아픈 환자에게 양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
가벼운 증상은 동네 병·의원으로

